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16년 9월 15일 | 총권 40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하2로 267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아이들이 스스로 서는 자기조절학습의 장 학교도서관

가을에 학교도서관은 더욱 바쁘다. 결실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 겹치면서 독서프로그램도 많고, 수행평가 때문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도 급증하고, 여러 과목의 도서관 수업으로 시간표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아침부터 복사기 앞에 줄을 길에 늘어난 학생들을 도와주고, 밤샘 독서토론 캠프를 준비하는 회의에 참석했는데 당초 기획안 보다 자꾸만 일이 커지고 늘어났다. 하지만 일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참 고맙다. 교사 독서모임 도서도 미처 못 읽었는데 도전독서골든벨 지정 도서인 최인수의 『창의성의 발견』도 읽어내야 한다. 독서퀴즈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하는 독서라서 어쩔 수 없이 긴장하게 된다. 인문독서 발표대회 홍보를 하고 심사해줄 선생님을 섭외하면서 학교도서관의 많은 프로그램이 사서교사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기술가정 선생님이 정보활용 수업으로 성인병 예방, 미래 기술, 친환경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협의하러 왔는데 도서관에 참고자료가 부족해서 걱정이다. 요즘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단순 이용을 벗어나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교육적인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 아무튼 중간고사가 끝난 요즘의 학교도서관은 무척 분주하고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만남과 대화, 활동들을 종합해보면 교육활동의 강화라는 맥락으로 파악된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에 속한 기관으로서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은 모체인 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이 최우선시 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의 핵심적인 가치는 교육적인 역할에 있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인 역할의 중요성은 학교도서관의 본질을 밝히고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학교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생 스스로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며 정보 자원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교육활동에서는 결과와 함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학생은 정보를 탐구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주체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은 개방적이고 허

용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서 다양한 형태의 방해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학습의 진행을 가로막는 인터넷, 핸드폰, 만화의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흥미저하로 인한 소극적인 학습태도와 잘못된 과제 선정, 정보를 평가하지 않고 오류를 담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주요한 장애요인이다. 또한 상업적인 광고와 사실정보를 구분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인터넷 정보들에 파묻혀서 목표를 잃고 헤매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학습 환경을 통제하려는 행동이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에 대한 태도나 동기와 관련이 있다. 학습상황에서 자기조절학습 수준이 높은 학생은 지식이나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노력을 더 투자하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한다. 자기조절학습의 특성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신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능력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교육활동에서 자신의 내부와 외부의 학습환경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관심과 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하루하루 일어나는 도서관의 바쁜 일상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찰해보았고, 교육적인 역할의 강화라는 큰 흐름을 주요한 맥락으로 파악하였다. 학교도서관에서 교육활동이 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학교도서관의 본질적인 사명에서 찾아보았다. 뒤이어 학교도서관의 교육에서는 학생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다보니 학습을 가로막는 방해요인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습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자기조절학습이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학교도서관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표정은 밝다.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교실에서 선생님께 교과서로 배우는 것과 다르게, 교과서 없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운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학교도서관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이승길 | 경신고 사서교사, 학도협 대표, 학도넷 공동대표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남송리더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김주상 / 박지원 / 김태완 / 신정현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요.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미디어 기반 교육 지원 센터, 청평중학교 도서관

- 이연희(경기 청평중학교 사서교사)



청평중학교 독서동아리 <CP 책버블리더스>

안청평중학교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13학급의 혁신 학교입니다. 학교 어디에서나 “사랑합니다!”라는 우렁찬 아이들의 인사를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 초, 첫 출근을 하며 ‘사서교사의 1년 공석은 도서관을 죽어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엔 충분한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학교도서관의 교육지원 기능을 회복하고 청소년 독서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5개년 운영 비전으로 ‘인성교육과 미디어를 결합한 청소년 독서문화의 확산’으로 잡았습니다.

교사들에게 <도서관 활용 프로젝트 수업>을 제안하였고 현재 사회과와 기술가정과의 도서관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7차시로 이루어진 사회과 프로젝트 주제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이며 기술가정과는 “최고의 건축물을 찾아라!”입니다. 이 프로젝트 수업은 모둠 구성 계획부터 평가까지 교과교사-사서교사의 협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제별 ‘자료 꾸러미’를 제작하여 단행본뿐만 아니라 뉴스 영상부터 신문기사 등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내에 없는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하거나 공공도서관의 단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책 읽기는 싫어하는 아이

들을 위해 팟캐스트 전문 장비와 방송 채널을 구입했습니다. 친구 4명이 모여 하나의 책을 선정하고 도서관에 신청하면 즉시 구입을 해줍니다. 아이들은 충분한 독서 후에 대본을 만들고 팟캐스트를 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깊게 읽기와 자유로운 의견 나눔’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팟캐스트라는 미디어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매체여서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츰 주변 친구들과 초대하여 <전교생이 참여하는 팟캐스트> 독서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학생 저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독서동아리 학생들이 『소셜 속에 빠진 뉴스』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총 300페이지가 넘으며 아이들이 미디어(뉴스, 영화, 신문 등)에서 관심 있는 기사를 찾고 그것을 인성 주제와 엮어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담은 주제는 사회적 책임, 자아존중, 소통, 정의, 용기, 성실, 자기조절 등 인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써 내려 가며 필요한 배경지식을 신문기사에서 찾거나 친구들과 토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책 쓰기의 또 다른 매력’을 느꼈습니다. 삽화나 표지는 모두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만든 것이며 표지 모델도 자신들의 모습을 흐릿하게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뉴스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1학기 동안 ‘뉴스로 세상

읽기’라는 동아리 수업을 했고 세상의 이야기가 어떻게 뉴스가 되는지 알기 위해 신문사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주말에도 함께 학교도서관에 모여 책을 쓰고 라면도 끓여 먹으며 웃던 때가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1학년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 자유학기제 수업을 개설하였는데 수업의 목적은 미디어를 읽고 쓰는 ‘Media Literacy 능력과 인성 함양’에 있습니다. 주제는 <뉴스로 하는 인성교육>이며 매주 화요일 6, 7교시 블록 타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수업은 인성 주제에 맞는 뉴스, 신문기사, 광고, 이미지 등의 자료를 이해하고 학생 참여형 모둠학습으로 진행합니다. 배려 수업에서는 ‘우리 학교 1분 배려 동영상 만들기’, 사회적 책임 수업에서는 ‘정직한 기업광고 만들기’, 청소년 노동인권 수업에서는 ‘노동인권 홍보문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름방학 독서 교실은 ‘미디어를 활용한 인성 이야기’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강사와 VJ특공대 제작 PD를 초청하여 책을 매개로 한 미디어 제작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송국 PD가 꿈인 아이들과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총 5일 동안, 27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청평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서관 활동은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미디어 활용수업 지원, 청소년 독서 팟캐스트 제작, 학생 책 쓰기 프로젝트, 뉴스를 활용한 자유학기제 수업, 미디어 독서교실 프로그램입니다. 모두 인성과 미디어 교육을 접목하려고 했고 청소년이 좋아하는 매체로 오래 독서문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학교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교육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에게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곳, 학생들에게는 때때 문화 공간이자 마음껏 읽고 토론하는 지식 향유의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3년간 중학교 도서관에 근무했으면서도 학교를 옮기고 보니 신규와 같은 마음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에 끼어 ‘진정으로 중학교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고군분투하며 꾸려가고 있는 우리 청평중학교 도서관, 부족하지만 재잘대는 아이들의 행복 공간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청소년 독서 팟캐스트 제작 장면



1학년 자유학기제-뉴스로 하는 인성 교육



매일경제 신문사 일일 기자체험

가족과 함께 도서관에서 노는 날

- 강순화(중국 길림성 영길현실험소학교 도서관담당교사)

지난 여름 학도넷이 주관한 한국 연수 중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참관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고 벽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빠와 함께 도서관에서 노는 날'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돌아가서는 꼭 한번은 이런 활동을 해 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대담하게 이번 학부모 개방일에는 전교생적으로 친자 독서활동을 벌리는 게 어떠한 여쭙었더니 흔쾌히 승낙하시면서 대대적으로 지지해주셨습니다. 하여 배명순주임과의 여러번 되는 토론을 거쳐 방안을 내어오고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벌리는 활동이라 근심이 태산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주임선생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의 합심으로 활동을 원만히 결속 지을 수 있어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영길현조선족실험소학교에서는 학부모개방일활동을 맞이하여 새로 지은 네모상자도서관

관을 빌어 수업참관 대신 학부모님, 선생님과 같이 하는 "책사랑" 이중어독후 그림그리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8:50부터 10:40분까지 두시간 동안 모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처음으로 거행하는 독후 활동이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한시간을 리용하여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고 업간체조가 끝난 다음 또 한시간을 리용하여 학부모님과 같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 느낌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책표지를 그리는 독후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유한 음악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속에 빠져서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의 얼굴마다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엄마, 아빠들과 같이 자기가 꿈꾸는 모든 것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애들의 얼굴에도 더없이 밝은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이같이 활동 후 학교에서는 각 반의 복도에 작품을 전시하고 전교 사생들이 민주 투표하는 방식으로 우수 학급과 우수작품을 선발하여 학교신문에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요."

"애들과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더 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번 활동에서 정도 더 돈독히 쌓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도 소학생이 된 느낌이에요. 정말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독서활동을 계속 견지했으면 좋겠어요."

손자, 손녀, 딸, 아들과 같이 그린 작품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의 말씀입니다. 애들은 더할나위 없이 좋아했지요.

"우리 할아버지는 화가예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런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나 사랑합니다."

표현력이 차한 친구들도 이날은 모두가 마음속 말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답니다. 더욱이 120여 명의 학생들과 전체 학부모님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해지는 표정을 보니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장선생님께도 감사하지만 이번 연수에서 도움을 주신 한국의 많은 사서선생님들과 책임자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덕분에 우리 300여 명의 전교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이 더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직접 읽어주시면서 독서지도를 하시는 1학년 전금련 선생님



지도를 받고 따라서 애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1학년 학부모님들



독서가 끝난 후 복도에서 그림그리기



독서가 끝난 후 도서관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그림그리기



각 반마다 복도에 작품전시

<학교소개>

길림성영길현조선족실험소학교는 길림성 영길현 구전진에 자리잡은 1933년에 건립되어 지금까지 83년이란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학교입니다. 현재 42명 교직원과 13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독서를 몹시 중시해왔으나 올해 새로 건립된 네모상자도서관을 충분히 리용하여 평일에 수시로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을 하루 중일 개방하고 토요일에도 학부모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 학부모와 학생들을 향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방학에도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사서선생님들이 도서연수를 통하여 얻은 한국의 많은 훌륭한 독서형식과 방식을 따라 배워 독서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흥취를 불러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말과 글을 더 잘 알고 이어나가며 상상의 나라를 마음껏 펼치면서 꿈을 키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모상자도서관은 "네가 꿈꾸는 모든 걸 상상해봐, 자유롭게"의 앞글자를 따낸 줄임말이다. "네모상자" 도서관은 한국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중국 조선족학교 교육지원사업이다.

남송리더서평

“남송리더” 모임은 2013년 남양과 송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학교도서관 사서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현재는 봉담 지역으로 확대되어 총 9명의 초등학교 사서들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만나는 모임에서는 그림책과 동화책을 주제별로 깊이 있게 보았고, 현재는 어린이 책과 병행하여 일반도서 1권을 정해 독서토론 및 서평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출판사(보리, 김영사 등)를 탐방하여 편집자와 이야기 나누거나 이색 서점 및 이색 도서관 탐방, 도서관 문화관련 나들이를 함께하며 도서관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활동 사서 : 갈담초 조영신, 남양초 모수경, 송화초 오소희, 수기초 이정향, 수영초 권현정, 청원초 정윤선, 해운초 허경미, 행정초 구미숙, 활초초 조무경).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

마크 팻, 게리 루빈스타인 글/ 마크 팻 그림/ 노경실 옮김/ 두레아이들/ 2014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여기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로 불리는 ‘베아트리체’가 있다. 그런 베아트리체에게 달걀을 떨어트릴 뻔한 사건이 생기면서 장기자랑대회에서 실수할까봐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드디어 장기자랑대회 날, 준비물을 챙겨 대회장에 간 베아트리체는 과연 무사히 대회를 마칠 수 있을까? 완벽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많다. 하지만 아이들의 실수도 그대로 받아 준다면 한 발 성장하는 아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인 에어와 여우, 그리고 나

패니 브리트 글/ 이자벨 아르스노 그/ 천미나 옮김/ 책과콩나무/ 2014

헬레네는 책을 읽는다. 『제인에어』를. 다른 애들에게 무심한 척, 혼자 집중한 척 하면서 읽는다. 그러나 제아무리 책 속의 상상의 덩굴로 울타리를 쳐도 아이들의 수군거림과 눈총에는 마음의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과연 헬레네는 책과 여우, 친구와 더불어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하게 될까? 무채색과 유채색의 대비 구조의 그림 동화로 소녀의 감성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 아이가 바로 나야

유다 아틀라스 글/ 다니 케르만 그림/ 포이에마/ 2014

어린이의 마음속을 마치 창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책. 페이지마다 열 개의 문이 그려져 있고 등장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들성들성 그려 놓아 자연스럽게 창밖으로 향한 시선을 따라가게 된다. 페이지 중간에 적힌 시는 어른의 눈과 아이의 마음 사이에 존재하는 벽과 거리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공감을 하며 무릎을 치게 된다.



딱새의 복수

이상권 글/ 김유대 그림/ 시공주니어/ 2016

천방지축 말썽쟁이 선구의 시골 생활을 그리고 있다. 선구가 얼마나 말썽쟁이인지 시우네 똥개 길똥이도 선구만 오면 개집 안으로 짹째 숨을 정도다. 선구는 새를 좋아해서 소리만 들어도 구별할 수 있지만 문제는 새들이 선구만 보면 달아난다는 점이다. 전작 <똥개의 복수>에서 길똥이가 멋지게 복수했는데 딱새가 복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선구네 집에 등지를 틀 수 있는 용감한 새가 있는지 궁금하다.



청라 이모의 오순도순 벼농사 이야기

정청라 글/ 김종석 그림/ 토토북/ 2010

너도나도 시골을 떠나는 시기에 농사를 짓겠다고 시골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 그것도 도시 생활을 할 만큼 한 중년이 아닌 29살의 아가씨 혼자서. 이 책은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자가 무작정 시골로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배우며 겪은 일을 일기 형식으로 쓴 글이다. 어른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어린이가 읽으면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대신 부모가 읽어주며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은 어떨까.



달을 줄걸 그랬어

존 무스 저/ 천미나 역/ 담푸스/ 2016

판다 ‘고요한물’이 삼형제에게 들려주는 동양의 옛 우화 3가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인성동화이다. 판다의 이름을 ‘고요한물’이라고 한 것에서부터 저자의 의도가 잔잔히 전해진다. 삼형제는 판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될까? 내용과 잘 어울리도록 동양의 아름다움을 살린 수채화가 매력적으로 다가 온다.



책이 있는 나무

비센테 무노스 푸에에스 글/아돌포 세라 그림/ 김정하 옮김/ 풀빛미디어/ 2015

나무 위 오두막집 위에서 발견한 책 한 권. 버지니아와 책을 싫어했던 동생들이 오두막집에 드나들면서 독서를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개구리 르네, 족제비 우고, 아기까마귀 새 그림이 버지니아의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도 즐겁다. 읽다보면 어느새 ‘책을 읽어야 한다’는 당위보다 ‘왜 읽어야 하는지’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가족 연습

린다 몰라리 헌트 글/ 최제니 옮김/ 개암나무/ 2014

전통적인 대가족, 핵가족 외에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부부가정, 다문화 가정 등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 ‘가족연습’은 칼리가 위탁가정에 들어가 적응해가는 이야기이다. 새아빠, 엄마와 살기 어려워지자 칼리는 머피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된다. 상처 많은 칼리는 말장난과 독설을 즐기며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머피 부인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사랑에 눈 떠 가는 칼리의 심리적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

이덕일 글/ 역사의 아침/ 2011

저자는 한국사의 쟁점들을 명쾌하게 풀어내 역사의 대중화를 이룬 역사학자다. 제도권에서 배운 역사교육이 틀릴 수 있다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아주 흥미로운 책이 될 것이다. 사도세자는 아들 정조에 버금가는 성군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역사에 만약은 없단다.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는 우리가 지금도 꿈꾸고 있는 나라일까?



소금

박범신 글/ 한겨레출판/ 2013

5년간 사우디에서 일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빨대 역할을 묵묵히 해내다 어느 날 닥쳤던 가출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돌이켜본다. 퇴약별 염전에서 일하다 아들의 졸업식 전날 죽은 아버지를. 그는 가출 후 만난, 일면식도 없는 김승민의 대소변을 받아주며 간호한다. 임종을 지키지 못한 사죄의 마음이었을까? 다양한 모습으로 살지만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께 박수를 보낸다.



산소헬멧

서유리 글/ 기연희 그림/ 머스트비/ 2015

2222년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산소 헬멧을 쓰고 다니며 대부분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일부의 학생들만 학교를 다닌다. 주인공 엄귀동! 최고 부자들만 사는 에메랄드 성에 살며 외동아들로 귀하게 자라 안하무인이지만 엄마의 권유로 학교를 다니게 되고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 축구를 하며 친구와 우정도 만든다. 머지않은 미래의 생활을 보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생각해보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만드는 주인공을 만나보자.

내가 권하는 책



만복이네 떡집

김리리 글/이승현 그림
비룡소/56쪽/2010년

동화에서 교훈과 책 읽는 즐거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른인 작가가 어린이 독자에게 교훈을 주어야겠다는 틀에 얽매다 보면 이야기를 무겁고 설교적으로 이끌어내기가 쉽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이 뻔해지기 쉽다. 그래서인지 '만복이네 떡집'의 주인공인 만복이의 별명이 욕쟁이, 캄캄 만복이로 등장했을 때의 처음 느낌은 '학교에서 말썬 깨나 부리는 한 남자 아이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교훈적이며 작위적으로 무겁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생각했고,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읽어내려 갔다.

그러나 그런 예상을 깨고, 어느새 책 속으로 쏙 빠져들게 되었다. 어른인 나도 읽는 내내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라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안고 읽게 된 것이다. 이 책은 틀어진 친구와 관계를 개선하고 배려심을 가지려면 '어쩌어찌 해야 한다.'라고 교조적이며 설교적으로 풀어내지 않은 것이다.

무거운 이야기 대신 주인공의 즐겁고 유쾌한 마술적인 체험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 이야기에 쏙 빠져들 수밖에……. 예를 들면 속마음과 달리 사람에게 상처될 만한 말이나 욕을 쏟아내던 만복이가 찹쌀떡을 먹고 입이 척 들러붙어 말을 못하게 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바로 내뱉는 것보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교훈을 준다. 바람떡을 먹게 되어 허파에 바람이 든 것처럼 실실 웃게 된 사건은 '인간관계에 있어 환한 웃음만큼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없다.'라는 교훈을 준다. 썩떡을 먹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게 된 사건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라.'는 지혜를 준다. 이 밖에도 각각의 떡을 먹음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은 도무지 해결하기 힘들 것 같은 틀어진 친구들과의 관계 개선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처럼 주인공이 가진 문제 해결방법을 신기한 마술과도 같은 유쾌한 체험을 통해 제시하고 넌지시 깨닫게 하는 것이다. 또한 '달콤한 말이 술술 나오는 꿀떡'과 같은 신기한 기능을 가진 떡과 '아이들 웃음 아홉 개와 같은 이상한 떡 가격'의 등장만으로도 아이들을 매료시키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교훈과 책 읽는 즐거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만복이네 떡집'을 저학년 어린이들이 꼭 한 번 읽어보면 한다.

- 김윤초(서울 월정초등학교 사서교사)



열일곱 살의 인생론

안광복 지음/사계절/170쪽/2010년

“열일곱의 나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나는 어떤 아이인가?”

안광복의 <열일곱 살의 인생론>은 열일곱 살의 청소년들이 궁금해 할 만한 물음들을 담아낸 철학 에세이다. 이 책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성장통을 넘어서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철학적 지혜를 담고 있다. 저자는 책을 열다섯 가지의 주제 (돈, 짝사랑, 열등감, 가치관, 중독, 이미지 메이킹, 관계, 성욕, 애도 등) 로 나누어 각 주제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며 그 안의 소주제로 간단하지만 공감하고 고민해봤을 만한 글로 많은 것을 알려준다.

저자의 첫 주제인 '돈'은 청소년들뿐만 아닌 대부분의 사회인들이 매달리고 추구하는 것이다. 저자는 “부자가 되면 더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통해 돈을 따라 움직이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깨우친다. 저자는 우리가 돈 쫓는 인생이 아닌 돈에 대한 욕심에 휘둘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인생을 통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전한다.

또 다른 주제 '적성'에서는 '우리는 사회에서 추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 길들여지기를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어 볼 수 있다. 어린아이 때부터 성적에 따라 평가받고 시험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으며 자라온 우리는 과연 진정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 성실함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짧은 부문이지만 우리에게 여러가지 생각을 할 여지를 준다.

그 외의 주제들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인생 역전', '친구'라는 진정한 관계, 무작정 따르는 '출세 공식', '이미지 메이킹' 등으로 우리에게 따끔한 일침을 해주기도 한다. “50대 전의 인생이 전반기 삶이라면, 그 이후는 후반기 삶이다. 더이상 노년기는 없다. 후반기 인생이 있을 뿐이다.”(p.85) 아직 전반기의 삶을 살고 있는 '나'들에게 그리고 후반기의 삶을 전반기보다 의미있게 살고 싶은 '나'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을 접함으로써 지금까지 길들여진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나'를 위해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란다.

- 이하영(17세)



울타리를 넘는 방법이 하나일까요?

야엘 비란 지음/유지훈 옮김
책속물고기/36쪽/2015년

3학년 남자아이가 담임선생님 심부름으로 DVD를 골라 달라고 왔다. 재미있는 거로. 그래서 “네가 재미있는 것, 고르면 대출해줄게” 했더니 자기는 결정 장애라 나보고 정하란다. 헉, 이럴 수가, 재미있는 DVD 찾는 것도 생각하기 싫고 두려워하다니…… 요즘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학교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모든 문제는 정해진 정답이 존재하고 정답이 없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하기를 겁내는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 유난히 물음표가 커다랗게 그려진 책, <울타리를 넘는 방법이 하나일까요?>

호기심 많은 궁금이가 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 잠이 오지 않자 잠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잠을 자려고 양을 세기 시작했지만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녀석들의 숫자 세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양들 앞에 울타리를 놓고 밖으로 나오는 양들을 센다. 궁금이의 문제는 이제 양들에게 반갑지 않은 울타리를 넘는 고민거리가 되었다. 양들은 독자가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울타리를 넘는다. 이 책에 정답은 없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뿐이다. 자기 관점에서 나름 제일 나은 방법을 생각해내고 실천한다. 마지막에 궁금이는 울타리를 빠져나간 양들을 떠올린다. 어떤 양이 잘 넘었는지, 그 양은 왜 그랬는지, 어쩌서 그랬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현명한 방법 찾기가 시작된다.

이 책은 이스라엘 출신의 야엘 비란의 첫 작품이다. 그녀는 책에 '나에게 울타리를 주신 아버지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준 오빠에게'라고 헌사를 적었다. 이 글을 여러 번 읽고 나도 궁금이가 되었다. 울타리는 안전한 보호막인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인지. 우리 부모들은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언젠가 아이들은 울타리너머 자유와 넓은 세상을 찾아 양들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뛰어넘어 갈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궁금이처럼 현명하게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 윤문선(서울 고원초등학교 사서)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의 '로망'

김주상(경북 사곡고등학교 사서교사)

여러분! 학교도서관에서 책 보다 더 많이 빌려가는 물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휴지'입니다. 사서교사로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남학생, 여학생 구분 없이 어찌나 도서관에 휴지를 빌리러 오는지, 이제 도서관 출입문에서 몇척어하는 얼굴만 보아도 '요 녀석 휴지 빌리러 왔구나!'하고 못 이긴 척 빌려줍니다. 도서관 오는 길에 화장실이 있어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담임 및 교과 선생님들이 계신 교무실에 가지 않고, 도서관에 찾아와서 고민을 해결하려는 그들의 마음이 기특합니다.

이렇게 학생들 마음 구석구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경력이 쌓이다보니,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책도 읽고 싶고, 서가 뒤쪽에 숨어 사탕이나 초콜릿도 먹고 싶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수다는 물론, 마음에 드는 책을 몰래 훑어도 보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청년에 가까운 고3 학생들까지 도서관에 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학교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의 '로망'은 바로 직접 바코드 한번 찍어보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사서샘이 소원을 들어줄 테니 너희들은 마음껏 책을 읽으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료구입비를 제외한 학교도서관의 1년 운영 예산은 고작 2백만 원 안팎인데, 이것으로 천만 원대를 호가하는 '자가대출반납기'나 '예약대출기'를 구입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진 것이 대형 약국이나 마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정식 바코드 스캐너'였습니다. 모니터 분배기를 이용하여 여분의 모니터와 고정식 바코드 스캐너를 학생들 방향으로 설치하면 유용하고 저렴한 '셀프 대출반납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 후 아이들은 '세상 오래살고 볼 일이다.', '세상 정말 많이 좋아졌네!', '우리 학교 최첨단이네!'하면서 본인들이 알아서 책을 척척 빌려가고 가져옵니다. 솔직히 대출양도 좀 늘어났습니다. 처음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아이들과 도서부원 모두가 낯설어 했지만, 이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이용자 모니터를 보면서 책을 직접

대출하고 반납하다보니, 빌린 책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등록번호, 청구기호에 대해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아이들을 제일 헛갈리게 만드는 또 다른 바코드인 ISBN에 대해서도 제법 능숙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책을 통한 지적(知的) 만족과 함께 즐겁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작가 초청 강연회'가 아닌 '역자 초청 강연회'와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가 아닌 '좋은 구절 낭송대회'도 개최해 보았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면 나는 '삐이익~'하는 소리가 사서교사들의 귀에는 일상적인 울림일 수 있지만,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늘 새롭고 신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도서관을 대하는 마음은 늘 이용자 편에서 이용자의 눈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도 말입니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생

삼도서관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3곳의 도서관이라는 뜻으로, 삼도서관이라고 지었다

박지원(강원 정선고등학교 2학년 3반)

정선고등학교 도서관, 정선 교육도서관, 산아래 작은도서관. 내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도서관은 이 3곳이다. 학교 사서 선생님이신 한지희 선생님께서는 '도서관은 지금까지 있던 공공 기관 중에 가장 신성한 공간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도 웬지 모르게 도서관에만 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복잡했던 머리가 가라앉는데, 이것을 보면 참으로 도서관은 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선고등학교 도서관은 내가 정선고에 진학하면서부터 알게 된 곳이다. 정선고등학교 3층 끝에는 도서관으로 향하는 코너가 있는데 그곳으로 돌아가면 미닫이문이 날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항상 한지희 선생님께서 웃는 모습으로 나를 반겨주신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는 행사를 많이 한다. 각종 감상문 대회에서부터 독서동아리, 창의논문동아리, 게다가 아침독서클럽이라고 해서 매일 8시부터 25분간 아침에 책을 읽는 모임을 가지기도 한다. 학교에서 밥 먹고 체육 하는 시간을 빼면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제일 좋을 정도로 도서관은 나에게 큰 의미이다. 가끔씩 연체가 되어서 책을 못 빌리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읽고 싶은 책들은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 나는 우리 학교 도서관이 정말 좋다.

정선교육도서관은 정선읍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다. 어린이 자료실은 물론 종합자료실, 서고까지 갖춘 큰 도서관이다. 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가기도 쉽다. 어릴 때 정선교육도서관에서 실시한 과학수업과 리더십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량에서 혼자 버스를 타고 나와서 수업을 듣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재미있는 수업에 힘든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 후로도 아빠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만화 DVD, 읽고 싶은 책들을 빌려와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도 난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도서관에 오는 대부분의 목적이 공부하기 위해서인데 도서관 1층에는 자율학습실이 있어서 고등학생, 어른 할 것 없이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다. 시험기간에는 자리 쟁탈전이 이루어질 정도로 자리가 없는데 도서관에서 하는 공부가 더 잘되나 보다. 작년 겨울, 눈이 내릴 때 도서관 앞에서 좋아하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난다. 공부하다가 잠깐 바람 쐬러 나온 그 아이와 소중한 대화를 나누게 해준 곳도 이 정선교육도서관이다.

산아래작은도서관은 웃기게도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다. 그 이유는 아빠가 도서관 관장이시기 때문이다. 교회 본당을 1층으로 옮기고 나자 2층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시던 중, 정선꿈꾸는도서관 관장님이 도와주셔서 구절교회 2층은 산아래작은도서관으로 단장되었다. 신기하게도 산 아래에 있어서 산 아래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짓자고 했던 게 나한테 도서관 등록일이 내 생일인 1월 20일에 되었던 것이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 여러 곳에서 책 기부가 들어오고 책장도 사서 산아래도서관은 꽤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었다. 지금은 할머니들과 한글문해교실을 하시느라 바쁜 우리 아빠는 어느새 도서관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내가 다른 도서관은 몰라도 우리 집 앞에 있는 산아래도서관의 책들은 다 읽어보고 싶다. 집에 갈 때마다 읽으면 언젠가는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나와 관련된 3곳의 도서관을 살펴보았다. 그 중 어느 곳이 제일 좋냐고 하면 당연히 고를 수가 없다. 다들 내가 책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나를 단련시켜주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올해 우연히 학교 학급의 학급문고도우미가 되었다. 매주 도서관에서 발부되는 '세바람(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활동지를 나누어주고, 학급에 들어온 학급문고를 관리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친구들은 알아서 책을 잘 읽고 정리하긴 하지만 말이다.

작년에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봉사활동으로 산아래작은도서관에서 6개월간 봉사를 했었다. 매주 청소와 책 정리를 도맡으면서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생겼고, 산아래도서관을 이용하는 구절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힘썼다. 아무래도 도서관은 나와 땀레야 땀 수 없는 관계인가 보다. 도서관을 통해 나 또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리라. 나중에 나의 꿈인 한의사가 되어서 해외로 봉사를 나갔을 때 그 지역에 도서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도서관을 통해 얻었던 많은 이로움을 가난한 이웃에게 전하고 싶다.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중에 내 이야기가 그 도서관에 꽃힐 날을 기대해 본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출판사
평형수 같은 책
김태완(도서출판 북멘토 대표)

먼 바다를 향해하는 배의 밑에는 커다란 평형수 탱크가 있다고 하지요. 평형수는 혹시 예측할 수 없는 강풍이나 너울 등을 만나면 곧바로 배의 무게중심을 잡아주지요. 물론 화물선의 경우 화물의 선적이나 하역을 할 때에도 평형수의 양을 조절합니다. 청소년들은 먼 인생길을 헤쳐 나가가기 위해 이제 막 항구를 떠나려 하는 배와도 같습니다. 이 배가 성공적으로 항해를 마치려면 배에 무엇을 실어야 할까요? 대부분 대학입시라는 아주 큰 짐을 먼저 실으려고 하지요. 청소년 도서도 대부분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입시에 필요한 지식 정보를 잔뜩 실어 놓으면 그 무게에 짓눌려서 평형수와 같은 책들은 실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이런 배들은 험하고 긴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항해하기는 어렵겠지요. 평형수 같은 책이란 어떤 책일까요? 교과서와 참고서는 하나의 정답만을 알려주지요. 먼 길을 가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하나의 정답만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책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삶에는 정답이 없을 뿐더러 더더욱 정답찾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생은 질문으로 새롭게 발견되고 완성됩니다. 바로 이런 책들이 평형수 같은 책입니다. 먼 인생길의 무게중심을 잡아

주는 책. 북멘토의 청소년 도서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묻고 답하는 카페 시리즈>, <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질문 사전 시리즈> 등은 인간을 둘러싼 물질세계와 역사, 문화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청소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개발한 <14살, 철학 소년>, <14살 인생멘토1,2>, <14살 마음의 지도> 등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동시대의 인간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고 답하는 책들입니다. 또 하나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책이 있다면 바로 '문학'이지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청소년기는 이성 에 대한 호기심, 가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통제 하기 힘든 욕망이 분출되지요. 이런 비합리적인 자신의 감정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북멘토의 청소년 소설 시리즈로 20권 가까이 발행된 <바다로 간 달팽이 시리즈>는 청소년 소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장소설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여러 테마 들을 품고 있습니다. 생각이 곧 질문이다. 부조리한 느낌이 곧 문학이다. 생각과 느낌이 있는 책이 북멘 토의 청소년 도서입니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교사
나를 키워 주는 도서관
신정현(목포 서부초등학교 교사)

어릴 적 가장 좋아하는 이모가 도서관 매점에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지하 식당에 내려가 이모를 도와드리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서관 과 친해졌다. 고등학교 때까지 도서관은 그냥 내게 공부를 하러 가는 공간이었다. 대학교에 입학하니 도서관이라고 쓰인 글자의 큰 건물이 있었다. 20년 전, 그 때는 도서관에서 책을 찾느라 진땀을 뺐던 기억이 가장 많다. 그리고 친구들

과 함께 논문 자료를 찾기 위해 국회도서관을 간 적이 있다. 그 때의 기억은 참으로 놀라웠다. 너무 신기했고 다 큰 어른인 내게도 신세계였다. 대학을 졸업 후 고향에 내려와 선생님이 되었다. 책을 좋아하는 내게 도서관 업무는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웠다. 일반 교사가 도서관 업무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10년 전에는 학교 도서관에 봉사해 주시는 어머님들도 많지 않았다. 그래도 참 재미있게 일했다. 새 책이 오면 어머님들과 함께 바코드 작업을 하고 새 책을 정리하며 도서관을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 2016년 8년 만에 다시 초임 때 근무했던 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맨 처음 간 곳이 도서관이었다. 참으로 많이 좋아졌다. 체계도 많이 잡히고 좋은 책들도 많아 기분이 정말 좋았다. 학교에서 답답하면 도서관에 가본다. 그 속에서 보물을 찾듯 내 마음을 달래 줄 책을 찾아본다.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 씩 도서관에서 수업을 한다. 교육과정과 맞는 주제의 책을 함께 골라 읽어보고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일주일에 한번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선생님이 책 읽어줄까?" 하면 신이 나서 교실 뒤 쪽으로 가서 모여 앉는다. 물론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듣고 있다. 다 읽고 나면 우리 반 학급 도서가 되어서 모든 친구들이 돌아가며 읽는다. 선생님 읽어준 책이라 그런지 관심이 높고 서로 먼저 읽으려고 한다. 작은 바람이 있다. 나를 만난 제자들이 살아가며 힘든 일을 만날 때 책과 친구가 되어 힘을 얻기를 소망한다. 너무나 빠른 시대에 손 하나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도서관이 인터넷보다 좋다는 제자가 있기를 바라본다. 요즘은 학교 도서관,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등 많은 도서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이 편히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나는 도서관이 우리 친구들에게 놀이터가 되기를 소망한다.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 주기 위해 부족하지만 오늘도 나는 도서관에 간다.



두 나라 말로 읽는

이웃 나라, 옛이야기

그림책 안에는 엄마 나라의 말과 한국어, 두 언어가 들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엄마가 어릴적 들었던 옛이야기를 모국어로도 읽고, 한국어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 나라의 말과 글과 옛이야기를 읽으며, 엄마 나라의 정서와 가치관,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림은 엄마 나라에서 온 화가가 그렸습니다

다문화 그림책 (전 3권)

- 중국 옛이야기 마랑과 신비한 북**
비단에 붓으로 그린, 기품 있는 은은한 색채와 놀랍도록 세밀한 묘사가 현대 그림책과는 다른 멋과 향기를 보여줍니다.
- 베트남 옛이야기 코코넛 신랑**
베트남에서 가져온 종이를 오리거나 찢어 붙이고 포토샵 작업을 더해 완성하였습니다. 베트남 특유의 화려한 원색과 화가의 발랄한 표현이 더해져 사랑스런 그림책이 탄생하였습니다.
- 필리핀 옛이야기 불을 가져온 라망**
용암이 끓고 있는 검은 활화산과 우거진 야자나무 숲, 커다란 망고나무, 필리핀 조상들이 입었던 옷이나 장신구 등 한국인의 눈에 낯선 것을 단순화해서 재미나게 잘 표현했습니다.

학도넷 소식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16년 6월 3일 학도넷 사례공모 '나와 도서관' 선정작 발표
- 2016년 6월 11일 학도넷 '나와 도서관'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 2016년 6월 15일 소식지 여름호 발행(총권 39호)
- 2016년 6월 25일 학도넷 6월 만남과 바람 '한양도성을 걸으며 만나는 조선과 오늘날의 한국-낙산'
- 2016년 7월 8일~12일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담당교사 한국 방문연수 주관 진행
- 2016년 7월 8일~16일 학도넷 기획공연 과정연극 놀자와 함께 하는 그림책여행 '색깔손님, 똑똑 누구지?' 4개 도서관 지원공연
- 2016년 8월 8일~10일 학도넷 여름사서연수 '우리도 해보자! 작은책상 인형극!!'

신입회원 (2016년 6월~8월)

정회원 : 문수지 성미경 박사비나

준회원 : 신정현 나수정

웹회원 : 안 숙 전슬비 최지영 정윤정 이재훈 김정현 강연하
이선화 이준엽

회비 및 후원내역 (2016년 3월~5월)

정회원 회비

- 매월 5천원 : 강복숙 강영미 구미숙 권도경 길미숙 김경숙 (보령) 김대경 김선영 김심환 김영신 김은영 김정윤 김정혜 김하나 김효숙 마민희 문수지 박미영 박준섭 백경숙 선보배 성주영 이혜진 송경영 성미경 송숙영 송추향 송혜영 신은미 신정화 신형란 유서연 유정원 윤남미 이금화 이유정 이 현 이현애 임경순 정미선 정수연 정영희 정명하 주상태 차진미 채재현 최선옥 허지은
-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권기정 권향미 김경숙 김광재 김숙경 김은영 김순홍 김승주 김신희 김옥위 김중성 김진희 김진희(관악)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 샘 박영옥 박정해 박지연 변영이 백화현 백연주 오희애 유은실 이경자 이규향 이기영 이문숙 이영주 이찬미 장범진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강 조선휘 조은영 조의래 허경림 황봉희
- 매월 2만원 : 김순정(부천소사초)
- 매월 3만원 : 도서출판 북극곰
- 연회비 : 이근자(12만) 안재희(영숙)(12만)

준회원 회비

- 매월 : 김민형(2천) 김송요(2천) 김송현(2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권형(1천) 이제희(2천) 장벼리(3천) 장한솔(2천) 최유미(3천)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인세후원 : 안재희(33만, 코스모스 스쿨), 최인혜(11만, 잃어버린 자전거)

광고후원 : 고래가숨쉬는도서관(50만)

후원금 : 청출협(20만), 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50만)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안새해 아기(단비)/ 개동벌레가 똥똥(천개의 바람)/ 새로 쓰는 비슷한 말 꾸러미 사전(철수와 영희)/ 처음 만나는 직업책(미세기)/ 공원을 헤엄치는 붉은 물고기(북극곰)/ 인공지능시대의 삶(어른의 시간)/ 마음이 예뻐지는 동시, 따라 쓰는 동시(어린이나 무생각)/ 황제펄린 가족이야기 아빠의 발 위에서(북극곰)/ 양들의 왕 루이 1세(북극곰)/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 <인권이 해답이다>(철수와 영희)/ 이타와파 세상의 끝(밝은미래)/ 흥길동전(고래가숨쉬는도서관)/ 아톰믹스 지구를 지키는 소년(비룡소)/ 딱이 최고야(천개의 바람)/ 우리집(북극곰)/ 장갑보다 따뜻하네(북극곰)/ 콜 더 미드와이프(북극곰)/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글로연)/ 큰 할망이 있었어(낯은산)/ 그날 밤 이후 이영준(낯은산)/ 우리 아빠는 택배맨(낯은산)/ 나비 탐미기(가디언/시

루)/ 할아버지와 보낸 하루(도토리숲)/ 빙하기라도 괜찮아(비룡소)/ 네모(반달/차영경)/ 청소년을 위한 리딩으로 리드하라(생각학교)/ 나 홀로 버스(북극곰)/ 으악 괴물이다(고래가숨쉬는도서관)/ 소년과 코끼리(고래가숨쉬는도서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철수와 영희)/ 일기장 유령(소아주니어)/ 마랑과 신비한 그림책(단비)/ 코코넛 신랑(단비)/ 불을 가져온 라망(단비)/ 한권으로 보는 어린이 인류문명사 '호모씨피엔스에서 시작된 우리, 우리의 역사'(한울림어린이)/ 부끄러운 세계문화유산 군함도(우리교육)/ 정의가 필요해(미세기)/ 옥심쟁이 늑대(북극곰)/ 어떡하죠? 책임기가 즐거운 10가지 이유(미디어창비)/ 처음 만나는 직업책 3(미세기)/ 사라진 산(봄봄)/ 퀴즈 킹(상상의힘)/ 대중예술 본색(우리교육)/ 내가 똥? 내가 똥!(작은길)/ 세상에 읽지 못할 책은 없다(21세기북스)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여름호/ 개똥이네 놀이터(보리)/서울교육 여름호(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계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2016 학도넷 사례공모 '나와 도서관' 선정작 발표했습니다.

나도 몰래 나를 향기롭게 해준 도서관
이번 주제는 '나와 도서관' 이야기로 학교에서, 가정에서, 공공도서관에서, 자원활동가로 도서관과 맺은 인연, 시민들이 나서 도서관을 만든 이야기들이 풍성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주제로 사례공모를 했었지요. 이번에도 책과 도서관의 추억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나도 몰래 우리를 향기롭게 해주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이 우리 곁으로, 우리 삶 속으로 성큼 다가와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많은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그 아이들의 엄마역할까지 하고 있어 감동으로 눈물짓게 한 스님이야기, 교사로 도서관을 맡아 교사, 학생, 학부모 책동아리를 만들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가도 그 학교의 중심이 되어 독서동아리 모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이야기, 어릴 적 도서관 봉사한 경험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도서관과의 인연을 이어오다 20년 후 자녀까지 도서관으로 이끄는 사례, 중학교 때 도서관에서 좌충우돌하며 밤늦게까지 일한 경험으로 문헌정보학과에 합격한 이야기, 도서관의 나아가갈 방향까지 꼭 짚어 준 고등학생들 이야기, 공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어릴 적 기억들을 걸어 올리고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귀한 이야기들, 도서관과 책을 만나게 된 인연들이 얼마나 풍성한 현재를 만들어 왔는지를 보여줘서 한 편 한 편이 수필을 읽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례로 가슴을 따뜻하게 해준 응모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심사위원장 신형란-면목고 사서교사)

학도넷 '나와 도서관'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했습니다.

2016년 6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5시 국립어린이청소년 강당에서 학도넷 창립 12주년 기념 심포지움과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학도넷 6월 만남과 바람 '한양도성을 걸으며 만나는 조선과 오늘날의 한국-낙산'

한양도성의 4소문 중 혜화문을 시작으로 한양도성 낙산지구를 걸으며 마을과 마을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끊어질 듯 이어진 도성과 옛날과 지금을 겹쳐보며 오늘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때 : 2016년 6월 25일 (토) 오후 4~7시

• 다녀온 곳 : 혜화문-한양도성-장수마을-낙산아파트 터-한양도성-이화마을-광희동 채석장-백남준 집터-박수근 집터-흥인지문(동대문)-이간수문-동대문운동장터-장충동 및 신당동 일대의 한양도성-장충체육관-박문사 터와 장충단

중국 조선족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초청연수 했습니다.

2016년 7월 8일~12일 중국 동북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동포선생님 아홉분이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나라 도서관과 사서 선생님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4박5일 뜨거운 일정이었어요.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최하고 학도넷이 기획 주관 했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초등학교 도서관 방문-서울 신정초등학교 방문-학교도서관담당교사들과 간담회-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방문-숙명여자중·고등학교 도서관 방문-학교도서관추적놀이-학교도서관과 놀이의 실제-서울도서관 방문-서울 연가초등학교 도서관 방문-프레드릭 그림책 서점방문-이루리 그림책작가와와의 만남-양평 학도넷 작은도서관으로 이동-그림책과 인형만들기, 인형극-연수 평가회

학도넷 기획공연 과정연극 놀자와 함께하는 그림책 여행

'색깔손님, 똑똑 누구지?' 가 학도넷 사례공모에 선정된 4개 도서관에 지원공연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8일~16일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학도넷 여름사서연수 '우리도 해보자! 작은책상 인형극!!' 했습니다.

책과 인형과 놀이가 하나 되고, 소리와 음악과 몸짓이 어우러지는 시간. 이야기가 한 판 공연으로 확장되는 행복한 이야기꾼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용자와 진정으로 소통하는 자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 일정 : 2016년 8월 8일(월)~10일(수) (3일간, 10:00~17:00)
- 장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 강사 : 김지용 선생님(전 극단사다리 배우 겸 무대제작 현 극단 마루한 예술감독) 김리라 선생님(『위대한 건축가 무무』 작가)

8월 8일(첫째날)	8월 9일(둘째날)	8월 10일(셋째날)
함께 놀아요 웁업, 뽀뽀하기	스토리 구성하기 책속의 이야기 꺼내어 스토리 만들어보기	움직임 가지고 인형 움직이기/인형의 움직임 알아보기
점심		
책과 친해지기 책놀이도서관탐험 작은책상 인형극 미리보기1	작은책상 인형극 미리보기2 재활용품 활용하여 인형만들기/ 스토리에 맞게 캐릭터 잡기 음악 컨택하기	인형 마무리 하기
우리도 해봐요1 인형 만들기 판지인형 만들기	우리도 해봐요2 시간인형 만들기 색칠하는 방법 배우기	우리도 해봐요3 인형가지고 놀기/ 공연 함께 놀아보며 스토리 재구성 해보기
김지용 선생님	김리라 선생님	김지용 / 김리라 선생님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